Trauermusik for viola and strings

- □□

정보

개요
곡명: Trauermusik for viola and strings
작곡가: Paul Hindemith (1895–1963)
작곡 시기: 1936년
초연: 1936년 1월 22일, London BBC Studio 추모 방송, Paul Hindemith 비올라 독주, Adrian Boult 지휘 BBC Symphony Orchestra
성격: 조지 5세의 서거 직후 방송을 위해 쓴 독주 비올라와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추모 작품

IMSLP: Trauermusik

Wikipedia: Trauermusik

Paul Hindemith의 Trauermusik for viola and strings 는 독주 비올라와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짧은 단일 악장 작품이다. 음악은 Langsam, Ruhig bewegt, Lebhaft, Choral 이라는 네 부분으로 이어지며, 마지막
부분의 Sehr langsam 코랄이 전체를 닫는다. 네 부분은 독립적인 협주곡 악장이라기보다 하나의 연속된 추모 음악 안에 놓인 공식 구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작곡 배경과 초연

Hindemith는 1936년 1월 London에서 비올라 협주곡 Der Schwanendreher 의 영국 초연과 BBC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조지 5세가 1월 20일 밤 세상을 떠나자 BBC는 예정된 프로그램을 추모 방송으로 바꾸었고, 음악 관계자 Edward Clark와 Adrian Boult는 Hindemith가 참여할 새 작품을 마련했다. BBC의 프로그램
기록과 Malcolm MacDonald의 Hyperion 해설은 Hindemith가 다음 날 BBC가 마련한 공간에서 약 여섯
시간 동안 곡을 썼다고 전한다. BBC의 프로그램 기록은 필사자들이 곧바로 연주 파트를 준비했다고 설명한다.

그 결과는 1936년 1월 22일 런던 BBC에서 처음 방송되었다 . Schott와 IRCAM은 이 공연을 Hindemith가 비올라를 맡고 Boult가 BBC Symphony Orchestra를 지휘한 초연으로 기록하며, Hyperion은 BBC의 전국 방송으로 설명한다. Trauermusik 은 특정 추모 방송을 위해 완성되어 작곡가가 직접 연주한 작품으로
출발했다.

출판 정보와 편곡

Schott의 현재 study score는 ED 3514, orchestral material은 ED 3171이다. IMSLP의 서지 정보에는 Mainz의 B. Schott’s Söhne가 발행한 No. 3514와 1936년 기록이 보이며, 원전 총보가 1936년에 저작권 등록되고 1937년에 출판되었다는 설명도 함께 제시된다. 1936년은 제품 ·저작권 기록으로, 1937년은 원전

총보 출판 연도로 각각 나타난다. Hindemith 전집 Sämtliche Werke, Band III,4의 비올라 협주곡 자료에는 Trauermusik 도 수록되어 있다.

원형은 독주 비올라와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판본이다. Schott는 독주 바이올린 또는 독주 첼로로 연주할 수 있는 대체 파트를 함께 제공하며, IMSLP에는 비올라와 피아노 축약판과 오르간 편곡도 별도 항목으로 올라 있다. 대체 독주 파트와 편곡은 현악 오케스트라와 비올라가 결합하는 원형의 유통 범위를 넓힌 자료다.

소요 시간

Schott가 제시하는 전곡 시간은 약 8분이다. IRCAM은 6분, Klassika는 약 9분으로 표기하고, Lawrence Power의 Hyperion 녹음은 7분 46초로 수록되어 있어 실제 음반과 카탈로그의 숫자는 연주 속도와 기록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편성

독주 악기는 비올라다. 오케스트라는 제 1바이올린, 제 2바이올린, 오케스트라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로 구성된다. Schott의 대체 독주 파트는 비올라 대신 바이올린 또는 첼로를 사용할 수 있게 하지만, 초연 기록과 출판사 편성 표기는 비올라 원형을 가리킨다.

네 부분의 흐름

Hyperion은 Trauermusik 을 한 악장 안의 네 부분으로 설명하고, Schott는 각 부분을 별도의 표제로 제시한다 . 마지막 표제는 성악 합창 없이 현악 합주 안에서 비올라와 코랄 선율이 결합하는 구간을 가리킨다.

I. Langsam

Schott의 작품 설명은 첫 부분을 애도하듯 두드러지는 독주 비올라와 현악 음향으로 묘사한다. Malcolm MacDonald는 Hyperion 해설에서 이 구간이 Mathis der Maler 의 ‘Entombment’ 음악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밀접하게 모델링했다고 설명한다. MacDonald의 설명에서 이 부분은 Hindemith의 다른 작품에 놓인 성찰적 음악과 작곡 언어를 연결하는 출발점으로 제시된다.

II. Ruhig bewegt

두 번째 부분에는 고요한 12/8 박동이 놓인다. Hyperion의 해설은 이 흐름이 영국 또는 독일의 옛 민요를 떠올리게 하는 성격을 지닌다고 말한다. 해설은 특정 민요를 지목하지 않고, 느린 애도와 다음 부분의 움직임 사이에 놓인 민요풍의 연상으로 이 대목을 설명한다.

III. Lebhaft

Lebhaft 는 네 부분 가운데 가장 활기차고 결연한 성격을 드러낸다. Hyperion은 이 구간에서 에너지가 잠시 솟은 뒤 곧 사라지고 애도의 표현으로 돌아간다고 설명한다. 이 짧은 전환은 마지막 코랄이 안정된 종결로 들어가기 전에 작품의 진행을 한 번 밀어 올린다.

IV. `Choral: Für deinen Thron tret ich hiermit`

마지막 부분의 tempo marking은 `Sehr langsam`이다. Schott의 설명에는 `Vor deinen Thron tret' ich hiermit`이, 내용 목록에는 `Für deinen Thron tret ich hiermit`이 적혀 있으며 Hyperion은 `Vor`, IMSLP와 IRCAM은 `Für` 표기를 사용한다. 출판사 설명과 카탈로그에는 두 표기가 병존한다.

Schott는 Bach 코랄이 몇 차례 독주 비올라의 즉흥적 삽입으로 끊긴다고 설명한다. Hyperion은 이 결말을 Bach 코랄에 대한 자유로운 비가적 창작으로 부르며, Hindemith가 왕을 위한 음악에 그 코랄의 텍스트가 알맞다고 생각했다고 전한다. Hyperion과 Classical Music은 이 선율이 영국 교회에서 `The Old Hundredth`로 익숙했을 가능성도 덧붙인다. 여기서 `Choral`은 성악 합창 없이, 독주 비올라의 자유로운 선과 현악기가 받치는 코랄 선율이 한 구간 안에서 만나는 방식을 가리킨다.

한 번의 방송에서 비올라 레퍼토리로

`Trauermusik`은 조지 5세를 추모하는 특정 행사 음악으로 시작했지만, Hyperion의 Malcolm MacDonald는 그 사건을 넘어 레퍼토리로 남은 작품으로 설명한다. `Der Schwanendreher`의 방송 대체라는 출발점은 두 작품이 같은 독주 악기와 런던의 일정에서 연결되었음을 보여 준다. `Trauermusik`은 협주곡과 별개의 추모 작품으로 완성되었으며, 현악 오케스트라 편성은 원래 예정된 협주곡과 다른 규모로 방송용 추모곡의 범위를 보여 준다.

연주와 녹음

초연에서는 Hindemith 자신이 비올라를 연주했고 Boult가 BBC Symphony Orchestra를 지휘했다. 초연 기록은 작곡가가 작품의 독주 파트를 직접 맡았다는 공연사적 사실을 전한다.

Lawrence Power, BBC Scottish Symphony Orchestra, David Atherton의 Hyperion 녹음은 2010년 4월 Glasgow의 City Halls에서 녹음되어 2011년 1월 발매되었다. Hyperion 페이지에 함께 실린 비평은 Power의 따뜻하고 둥근 비올라 음색, 느린 부분의 애도 표현, Atherton과 BBC Scottish의 정교한 현악 질감, 자연스러운 균형을 높이 평가한다. 이 평가는 해당 음반과 연주자에 대한 비평가의 판단으로서, 약 8분이라는 출판사 표기를 실제 연주 사례와 연결해 준다.

BBC가 기록한 Scott Dickinson, Martyn Brabbins, BBC Scottish Symphony Orchestra의 2012년 연주는 1936년 방송 기록과 구분되는 후대의 기관 아카이브 연주다. Gramophone의 2014년 Guy Rickards 리뷰가 언급한 Hosprová의 음반도 `Trauermusik`이 비올라 음반 레퍼토리에서 계속 다뤄졌다는 수용의 한 사례를 제공한다.

주요 자료

- Schott Music, study score ED 3514
- Schott Music, orchestral material ED 3171
- Malcolm MacDonald, Hyperion Records 해설과 Lawrence Power 음반
- BBC Music, Our Classical Century

- BBC Radio 3, Experience Classical
- Classical Music, Hindemith Trauermusik
- IRCAM Ressources, Trauermusik
- Classical Source, Hyperion
- Gramophone, Hindemith Viola Works